

S#7 학교 옆 벤치 / 실외 / 낮

학교 옆 벤치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는 다인과 친구들.

나경 (다인을 보며) 너 웬일로 이번 작품은 채색이야?

다인 맨날 연필로만 그리니까 심심해서. 이상해?

나경 아니 그건 아닌데 뭐가... 낯설다고 해야 하나? 연필이 익숙해서 그런가...?

다인 뭐래.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연필 말고도 이것저것 해봐야지. 나경  
아니 그냥~ 솔직히 니가 연필소묘 제일 잘하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아쉬워서  
그르지.

영아 너 근데 오늘 내내 어딜 그렇게 봐?

다인 응? 뭐 소리야?

영아 4교시 내내 집중도 잘 못 하는 것 같고. 무슨 일 있음?

다인 (어색하게 웃으며) 무슨 일은. 그냥 멍 때린 거야.